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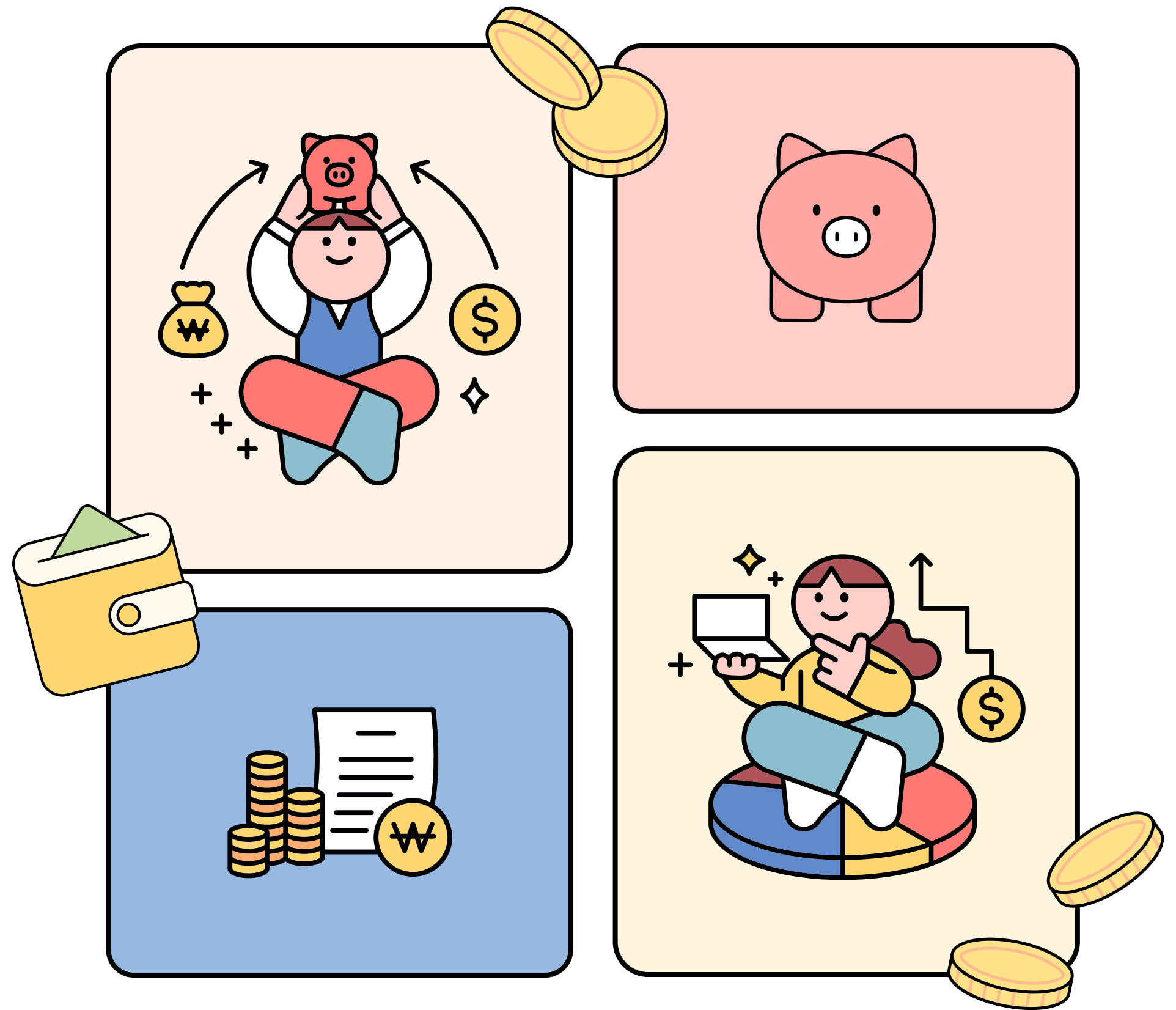
GROUP BOOKIT 2기

✔ 똑똑한 용돈 관리의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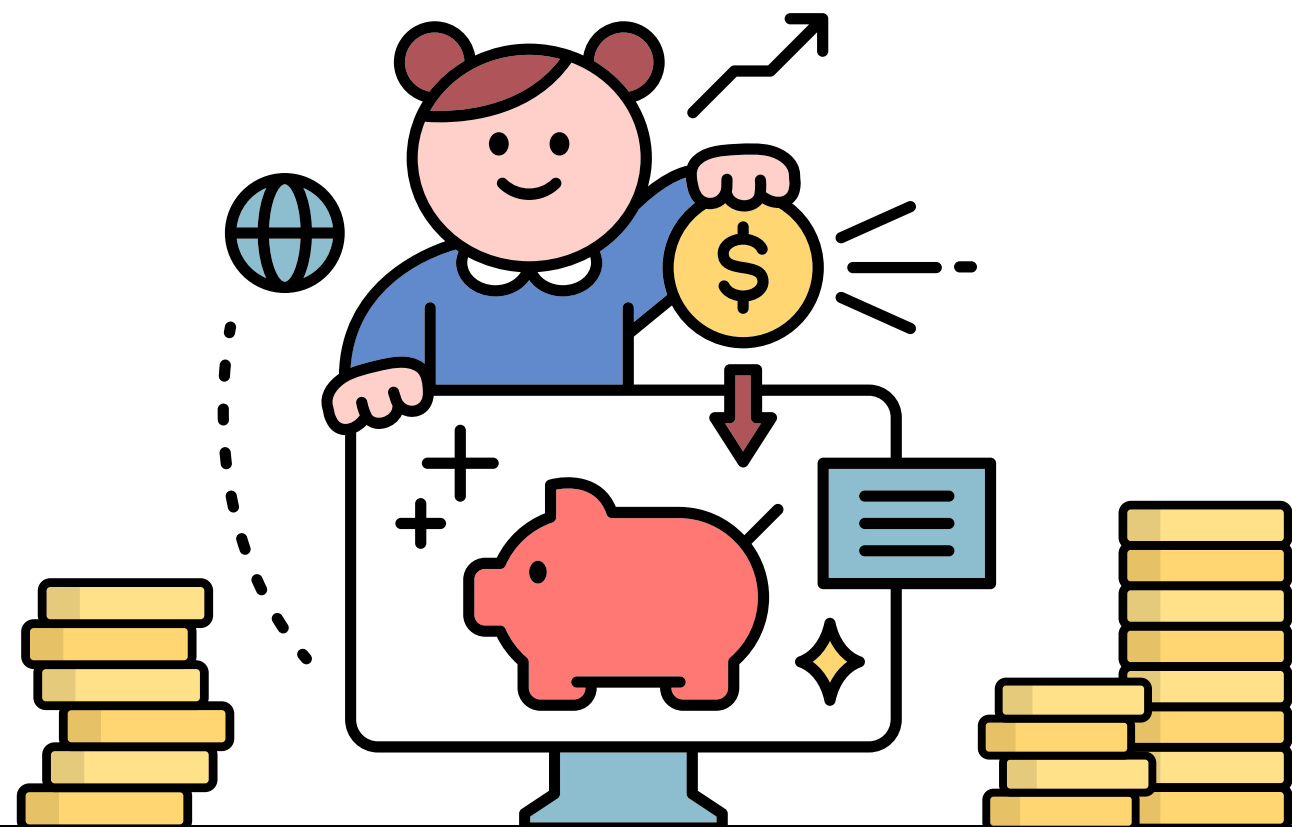
'심포'의 아이들

2회차 활동후기

2025.10.26(일) | 윤서, 서연, 아윤, 채영, 강희, 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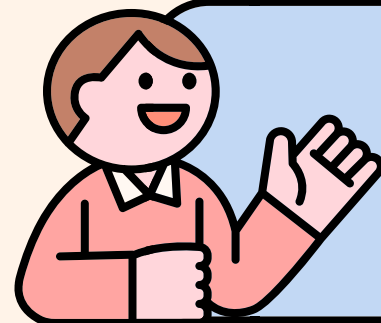


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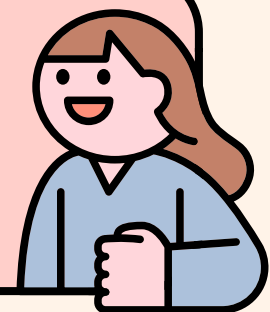
✔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보아요!

책을 읽기 전, 궁금했던 점을 말해보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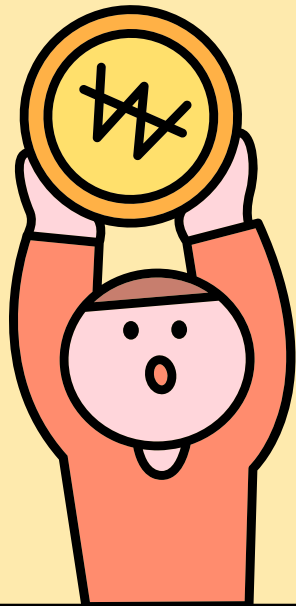
책을 읽으며, 나의 질문이
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

새롭게 알게된 내용은 무엇인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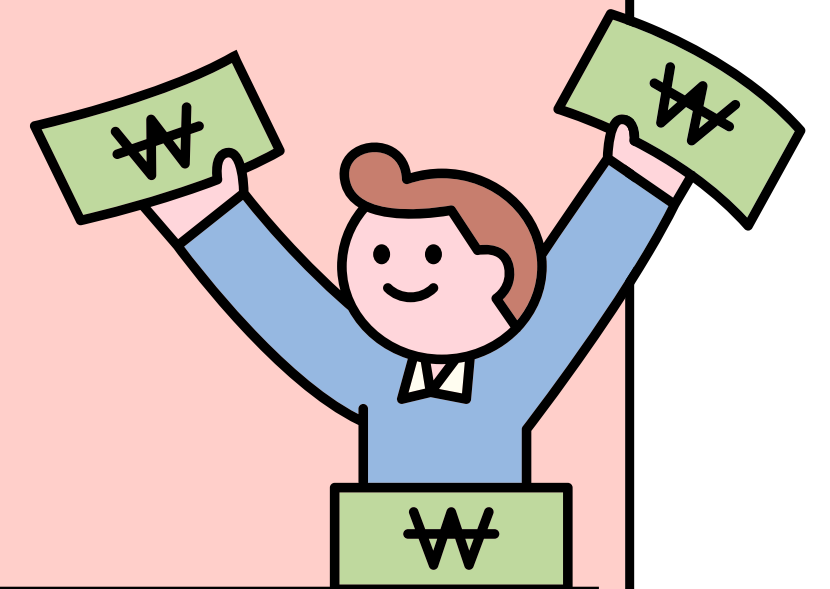
책에 관해 예측해보기

6~7세



- 시장에 있는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줄 것 같아요
- 시장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것 같아요

초 2~3학년



- 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
- 경제 생활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

친구들의 이야기



✓ 새롭게 배운 점

윤서 (10세)

- 음식을 만들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게 돈이 덜 든다는 것을 엄마께서 말씀해주셨어요.
- '경기가 안 좋다'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.

서연 (9세)

- 요즘 식료품이나 물건의 가격들이 오르는걸 보고 '인플레이션이 뭘까?' 궁금했는데 책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.
- 엄마, 아빠가 어릴 땐 자장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다고 하셨는데, 제가 어른이 되면 얼마 정도 될 지 궁금해요.

친구들의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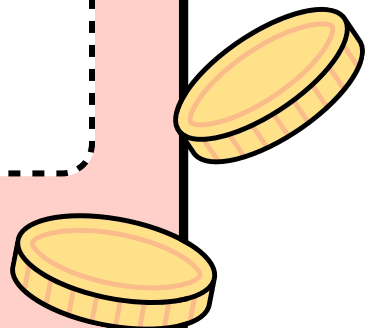
새롭게 배운 점

아윤 (7세)

- 물건을 잘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똑똑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법에 대해 배웠어요.
- 생각보다 물건을 팔지 않는 가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미용실, 병원, 학원, 키즈카페 모두 물건을 팔지 않는 가게예요.

채영 (7세)

- 미용실도 시장인 줄 몰랐는데, 물건을 팔지 않아도 시장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
- 시장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곳이란걸 배웠어요.



친구들의 이야기



✓ 새롭게 배운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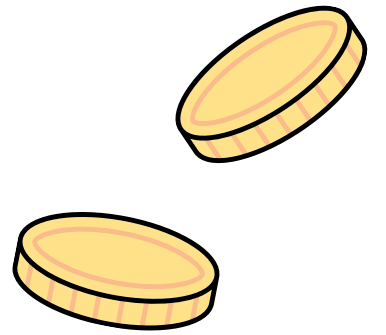
**강희
(7세)**

- 시장놀이를 하며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.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.
- 그래서 시장이 더 재미있어졌어요.

**정원
(6세)**

- 바다도 아닌데 문어와 오징어가 어떻게 시장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. 어부 아저씨가 잡아서 트럭에 싣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- 신기해서 계속 보고 싶었어요!

두번째 금융교육을 마치며



첫 모임은 날짜가 안 맞아 줌으로 했던지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. 어색했지만, 같은 책을 읽고 만나니 얘기할 것도 많고 쉽게 친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.

'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할까' 막연하기만 했는데, 금융교육을 통해 좋은 도서를 알 수 있었고 독후활동까지 할 수 있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. 실생활에 접목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 모임 후에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 좋았어요.

앞으로 금융 똑똑이가 될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봅니다.

